

# 벤처 성장 도와 '봄' 일으킨다

###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합동 제2 벤처봄 확산 전략 발표

집권 3년 차 혁신성장엔 무거운 짐을 싣고 있는 정부가 벤처·창업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창업의 질적 성장을 통해 '제2의 벤처 봄'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인프라 지원과 함께 신(新) 남방권 지역의 대통령 순방 경제사절단에 유망 스타트업 참여를 확대해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2022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6개에 불과한 유니콘 기업 수를 2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후 1시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벤처 봄 확산 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 벤처 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준화 중소기업벤처 장관, 최중구 금융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유니콘 기업 등 유망 스타트업이 정상 순방 경제사절단에 참여할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경제사절단 중 창업 후 7년이 채 되지 않은 기업의 비중은 약 18%였다. 순방 지역은 스타트업의 진출 수요가 많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 신남방권 시장이 추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세안(ASEAN) 지역과의 스타트업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창업비자, 외국인 창업허가 등을 협의하고 지원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담'을 계기로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도 구상 중이다.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신남방 지역 보증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상호보증 사례도 연내에 창출하도록 한다.

미국 시애틀(6월)과 인도 뉴델리(8월)에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돕기 위한 혁신 거점을 신설한다.

향후 운영 결과를 살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주요 거점에 추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 창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벤처 봄 확산 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중구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홍준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코트라(KOTRA)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해외 거점 공간 70여개소를 '공유 오피스' 형태로 임대해 스타트업 활동을 돕는다.

올해부터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기존 모태펀드, 성장지원펀드 등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가 연 5조원 규모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리스크가 높은 엔젤 투자와 회수시장, 신산업 투자 등에서 모태펀드의 역할을 특히 강화하고 정책 펀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이 창업 초기가 아닌 성장 단계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위 '죽음의 계곡'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이라며 "몇몇 기업에만 한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봄'을 일으키는 데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도 도모한다. 헬스케어,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 사례가 연내 100건 이상 나오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1사분기 내에 20건 이상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4월 기준 핀테크 관련 샌드박스 신청 건수가 105건인데, 이 심사 결과까지 포함하면 연말까지 100건 이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처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처등의결권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이라는 원칙과 맞지 않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선 한정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며 "민간을 비롯해 관계부처와의 폭넓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엄격한 요건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10년 이내에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 'Future Unicorn 50(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며 매년 50개 내외의 유망 ICT 스타트업을 공모 선발해 자금, 멘토링, 연구·개발(R&D) 기술 이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오는 5월엔 ICT 대기업이 기술 역량과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민관협업체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1

연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청년 창업 플랫폼인 '바포 청년혁신타운'을 개소한다. 핀테크·인공지능(AI)·블록체인 전문 기술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선발해 최대 3년간 금융, 컨설팅,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판교2밸리에는 복합 문화공간(I-Square), 광역버스 환승 정류장 등 정부 여건을 개선해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한다.

대구·광주·인천·순천 등 지방도 시·군·구 단위로 4곳에 설치할 혁신성장센터에 관교 밸리의 노하우를 전파하고 이를 11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에는 교수의 승진 여부 및 성과급 평가 시 창업 실적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창업·사업화 성과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창업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석사과정 중인 학생에 대해선 창업 활동으로 논문을 대체해 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와 창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매뉴얼을 제작해 오는 12월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사항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소관 부처의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1

# 소상공인 일자리 통계 만든다

### 올해 9월 경기선행지수 개편 가계·개인사업자 부채 분석

통계청이 올해 빅데이터센터 활용도를 높여 통계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프랜차이즈 통계, 소상공인통계, 신규졸업자 일자리 통계 등 국가 정책 결정 지원 통계를 개발한다.

또 올해 9월 경기선행지수를 개편하고 10월에는 북한통계협력 중장기 로드맵도 만든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사용자 위치기반으로 관심 키워드와 연관된 지역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지도를 개발해 서비스한다.

올해 9월까지의 통계와 연상정보를 융합한 '통계로 시간여행' 콘텐츠 개발 등 국가통계포털 시각화 서비스를 강화한다. e-나라지표를 통해 관련 정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별 법령 정보, 정책모니터링, 정책연구보고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계청 보유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공유하고 데이터 간 연계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통계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전담팀을 신설해 데이터 전문가 15명을 배치한다.

더욱이 올해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시스템과 데이터 연계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데이터 간 연계·분석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올해 10월부터 가계대출

취약계층 특성 및 경제위기 지역의 부채 변화, 서민 금융정책의 효과 등 가계 및 개인사업자 부채를 분석한다.

올 연말부터는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 민간 통계데이터를 활용한 특·광역시별 근로자 출퇴근 시간 등 근로자 이동을 분석한다. 같은 기간 소방청 구조활동 데이터와 등록선서스를 활용한 지역별, 사무원인별 등 생활안전사고 관련 통계도 선보인다.

국가 정책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도 생산한다. 올 12월까지 프랜차이즈 실태를 파악하는 프랜차이즈 통계, 소상공인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는 소상공인통계 등을 개발한다.

또한 신규졸업자의 일자리 현황과 변동성을 파악하는 신규졸업자 일자리 통계를 시범 작성하고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고용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 사용을 통계도 마련한다.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선행성이 약화된 일부 구성지표를 대체·변경 및 작성방법 개선 등으로 올해 9월부터 경기선행지수를 개편한다.

북한통계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 올해 10월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해 북한통계 개발개선을 위한 협력과제와 우선순위를 북한통계협력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국제기구·관련 부처 등과 협업체를 통해 북한 통계 생산 지원 검토도 추진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인 인재양성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통계선도학교를 확대하고 연구학교 우수사례를 발굴해 보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1

## "전북경제 활력에 힘껏 이바지"

### 최요철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부임

최요철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부임



최요철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부임

최요철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경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와 지역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전북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에 힘껏 이바지하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혔다.

1980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이후 /김영태 기자

## "저렴한 비용으로 마지막 겨울 즐기세요" | 무주덕유산리조트, 10일까지 올 겨울 시즌 마지막 할인

겨울의 끝자락이자 성큼 다가온 봄. 그래도 아직 쌀쌀한 날씨 탓에 보드나 스키를 즐기러 가거던 그 어느 때보다도 적당할 시기다. 저렴한 비용으로 알뜰한 스키를 즐겨보자.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지나가는 18/19 스키 시즌의 아쉬움을 달

래고 가족, 연인들이 함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올 겨울 마지막 특가 행사를 마련했다. 10일 폐장일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10일까지 리프트 주간 3만원, 반일 2만원의 정액요금으로 판매하고, 정비리프트는 1만원에 제공한다.

겨울 시즌이 막바지로 치달음에 따라, 폐장일인 10일까지 주간(08:30~16:30)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6.1km의 국내 최장 슬로프와 국내 최고 경사도(76%) 레이더스 슬로프 등 다양한 난이도의 국제규격 슬로프 34면을 보유

하고 있어 많은 스키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막바지 겨울 시즌을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